교수담론

대학은 신성한가?

정 지 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은 세속의 권력이 범접하지 못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거리로 뛰쳐나가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던 대학생들이 경찰 진압대에 쫓기더라도 일단 교문 안으로만 되돌아오면 안전이 보장되었다. 경찰이 대학 안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러한 불문율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경기 규칙으로서 충실히 지켜졌다.

그러다가 어느날 군인들이 고려대학교 교정으로 진격하여 학생과 교수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연행하는 사태가 빌어지자 대학의 신성성(神聖性)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처럼 대학은 더 이상 성역이나 치외법권지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의 상아탑이 군화발에 짓밟히는 대학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동정을 보낸 것은 '우골탑'이니 뭐니 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대학은 신성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학의 신성성은 여전히 굳건한 민간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그후 7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를 관악산 기슭으로 옮길 때는 '서울대가 시내에 있으면 데모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머나먼 관악산 골짜기로 쫓아보내는 것'이라느니, '박 대통령의 대학 혐오증 내지 열등감이 작용한 탓'이라느니 하는 다분히 미신에 가까운 유언비어가 술자리에서 나돌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대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고 뒷줄에서는 담배를 피워댄 것은 '신성한 학원을 존중하라'는 계율을 무시한 이교도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었다. 아무튼 이후 대통령의 서울대 졸업식 참석이라는 관행은 군사정권 시절 내내 사라지고 말았다.

'신성한 대학'에 대한 믿음은 이후 교수재임용제 도입이나 학원안정법 파동, 최근의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 왔다.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김밥장수 할머니의 미담에서, 입시철이면 팔공산 갓바위에 몰려드는 엄청난 인파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에게 사각모를 씌

워 사진을 찍는 졸업식장의 풍경에서, 집단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대학의 신성한 지위는 거듭 거듭 확인된다.

'대학은 신성하다'는 말은 참과 거짓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여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약간의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만, 절대 다수의 신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한 대학은 여전히 '진리의 상아탑'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세속적 이해관계에는 초연한 척, '진리의 상아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대학의 신성한 지위와 '진리'라는 상품의 매력과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교회가 '구원'이라는 재산을 취급하는 독점자본가라면(막스 베버), 대학은 '진리'라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독점자본가인 셈이다. 교회와 대학은 다같이 복잡한 상징체계와 교묘한 신성화의 회로를 통해 '구원'과 '진리'의 상품가치를 높여왔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교회와 대학의 성장과정은 대체로 일치한다. 즉, 6·25의 잿더미 속에서 하꼬방에 '교회'와 '대학'의 간판만 걸어 놓으면 구름 같이 신자들이 몰려들던 '꿈같은 그 시절'을 거쳐 80년대까지 불경기를 모르고 고도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언제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점에서, 그리고 한번도 공정거래법에 걸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교회와 대학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성역이었다.

요즘 들어 대학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으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대학이 필요없다든가, 대학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대학의 위기'란 현재의 대학교육이 부실하다든가, 국제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과 교육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일종의 대학비판론 내지 대학개혁론에 불과하다.

70년대 서구를 뒤흔든 학생운동의 여파로 대학체제가 혁명적 변화를 겪었지만 대학의 권위나 대학에 대한 믿음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듯이, 교육시장 개방과 입시생의 감소로 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은 21세기에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건재할 것이 틀림없다. 70년대에 서구의 진보적인 문인들이 '문학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 문학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듯, 대학의 존립 위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일반대중의 대학에 대한 믿음(그것이 부르디외가 말하듯 집단의 무지에서 비롯된 '꿈'이라는 위조지폐라 할지라도)이 존속하는 한, 대학은 영원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금까지 '진리'라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소수의 대학이 독과점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동업자들과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화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이른바 대학위기설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은 시설투자나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 광고나 판촉에도 신경을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조짐은 이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가령 대학보직자들이 고등학교에 나가 홍보활동을 벌이고, 세일즈맨 총장으로서의 능력이 국적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간혹 술자리 같은 데서 앞으로 자칫하면 내가 속한 학과나 대학이 문을 닫으면 어쩔 셈이냐는 농담 섞인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대학의 마법이 통하고 대학의 신성한 후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학

이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시인과 작가가 최근에 대학의 마법에 홀려 대학교수의 타이틀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것을 보라고 말한다.

대학의 신성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대학과 시민대학, 주부대학이 있는가 하면 승가대학, 신학대학도 있고 국방대학, 세무대학, 유도대학, 부동산대학도 있다. 그러니 멀지 않아 농민대학(농과대학이 아니다)이나 가요대학, 보신·건강대학, 고스톱대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명예박사, 포스트닥이 있고, 시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위계질서 외에도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따위의 복잡한 직제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와 직제는 결국 대학을 신비화시키는 회로인 셈인데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러한 신비화의 회로는 더욱 복잡하게 증식될 것이고, 대학의 신성화는 무관심과 차별화의 전략에 따라 더욱 교묘하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게다가 '진리'라는 상품은 언제나 순도 1백%를 보증받은 '꿈'이 아닌가. 그러기에 70년대 이후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판매하는 '진리'의 순도에 의심을 품고 손톱으로 긁어보고 이빨로 깨물어보고 심지어는 불 속에 넣어 보기도 하다가 '진리'보다 '진실'을 택하겠노라고 대학을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진실'의 홍칙하고 꾀죄죄한 몰골에 환멸을 느낀 다음 대부분 얌전하게 대학으로 돌아와 뒤늦게 졸업장을 받아갔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진실'의 쓴 맛을 본 다음에야 '진리'의 만고불변의 상품성을 가까스로 깨달은 것이다. 대학은 속빈 강정이고 '진리'는 도금한 주화에 불과하며 학위란 싸구려 물건의 값을 올리기 위한 상표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대중이 그것들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신통력을 지닌 마법의 부적들로 남아 있다.

바둑이나 낚시에 미친 사람은 바둑과 낚시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귀의 사활이나 대마의 활로 찾기에만 매달리고, 어떻게 저 고기를 낚을까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키느라 낚시와 바둑이 일종의 오락이요 취미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대학의 본질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그저 일상적인 학사일정이나 연구비, 연구논문에만 매달려 살게 된다. 그러다보면 대학이 하나의 제도요, 지식상품의 메이커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기 쉽다. 한편으로 막연히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신화에 매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다윈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휩쓸려 간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요즘의 나 자신의 모습이다. 겨울방학에는 어디 긴 여행이라도 하면서 모든 허장성세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속내를 꼼꼼히 들여다볼까 궁리해 본다. ☛

정지창/서울대 사범대학 독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합동통신사 기자, 동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서사극 마당극 민족극』 등이 있고, 논문으로 "Ödön von Horvath의 민중극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